

사회비교, 물질주의, 그리고 불안이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장 류 미

조 성 봉[†]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휴먼테크융합과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사회비교 및 물질주의가 그들의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불안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39세 미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초통계 분석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비교와 물질주의는 결혼의향과 각각 정적으로, 불안은 결혼의향과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은 물질주의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비교가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태도와 결혼의향이 높아지며, 현재 인식하는 불안의 수준은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 청년들의 태도 및 가치관, 즉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과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불안의 수준에 따라 그러한 개인의 태도/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결혼의향, 사회비교, 물질주의, 불안

[†] 교신저자: 조성봉,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Tel: 054-260-1934, E-mail: scho@handong.edu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가 월소득이나 자산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보다 그들의 결혼의향을 더 중요하게 예측함을 제시하고 있다. 양다연과 유계숙(202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기반한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고, 조성봉과 손해인(2023)의 경우 20, 30대 미혼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그들의 수입 크기보다 결혼의향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즉 실제 월급의 액수나 소유한 자산의 크기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결혼의향을 더 분명하게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객관적, 절대적 크기보다 그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의미가 더 중요함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의미부여와 주관적 해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즉 사회비교를 통해 구성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자신의 특징이나 능력, 가치를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성향을 의미한다(Gibbons & Buunk, 1999). 즉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나 영역에서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참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비교, 즉 개인의 처지/상황에 대한 사회적, 상대적 평가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과도 실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비교는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데(김경미, 2019), 이러한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은 결혼의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유계숙과 동료들, 2019; 이수민, 조성봉 2022)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손해인(2023)의 경우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를 통해 사회

비교경향이 높을수록 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은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이 그들의 결혼의향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기존의 수저담론이나 경제적 계층인식의 영향을 탐색한 결혼의향 연구들이(예를 들면, 권소영 외, 2017; 임재연 외, 2022) 주로 미혼 청년들이 갖는 자신의 부모의 지위/능력에 대한 평가와 비교에 기반하는 것에 반해 사회비교는 미혼 청년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반영함을 고려할 때,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의향과 사회비교의 연관성을 직접 살펴보는 것은 결혼의향 관련 기존 문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 물질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주의적 태도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질주의란 돈과 물질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Richins & Dawson, 199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와 만족을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ilver et al., 2021). 물질주의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면(Kasser, 2016), 결혼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물질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향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탐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성봉과 손해인(2024)은 미혼 청년들의 물질주의 경향성이 그들의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물질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물질을 통해

성공을 판단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실제로 결혼을 더 하고 싶어함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이 같은 물질주의는 앞서 제시된 사회비교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외의 경우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사회비교와 물질주의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왔는데,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사회비교가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Chatterjee et al., 2019; Kim et al., 2017).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사회비교가 물질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김경미, 2019; 이용건, 하창현, 2023; 최병섭, 이지연, 2019). 이 같은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나 상태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통해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로 물질을 소유, 혹은 물질의 소유를 통한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미혼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결혼의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미혼 청년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직접 살펴보려 한다.

한편, 그동안 국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특징인 높은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김석호(2022)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객관적인 자원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영향이 중요하며, 주관적 인식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고, 김근태(2024)의 경우 현 세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기저에는 소득, 일자리, 주거 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도 하였다. Spielberg(1972)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인식하면서 현 상태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해서 사는 삶, 혹은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실패할 확률이 높은 행동으로 인식하여 더욱 피하거나 미루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 그들의 결혼의향과 실제로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미혼남녀들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그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물질주의적 태도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특징이라고 여겨질 뿐 아니라 결혼 및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일컬어지는 변인들, 즉 사회비교경향성 및 물질주의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 또한 그러한 관계가 개인이 인식하는 불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을 통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이 갖는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과 물질을 중시/추구 정도가 실제로 그들의 결혼의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이 그러한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성, 물질주의, 불안 그리고 결혼의향의 관계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통한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결혼의향

결혼의향은 개인이 실제로 결혼을 이행할 생각 또는 의도를 갖는지 여부를 의미하며(원아름, 박정윤, 2016; 홍성희 2020) 이러한 결혼의향은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 즉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필숙, 이윤석, 2024). 국내 혼인율은 지난 2023년 기준 3.8로 확인되는데, 이는 불과 30여 년의 9.0 대비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다(조혼인율; 통계청, 2024). 한편 이처럼 급격히 낮아진 혼인율은 우리나라의 비혼 및 만혼 현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9-34세 우리나라 청년들의 81.5%가 미혼인 상태이며,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도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24). 현재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이같이 낮은 혼인율은 당연한 저출산 현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비혼 및 만혼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그동안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간의 결혼의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경제적 인 변인이나 부모의 지원, 결혼 관련 정책 등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선강, 어성연, 2013; 권소영 등, 2017; 박혜민, 전귀연, 2018; 오세비, 박성철, 2018 등).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예를 들면, 연령, 성별, 학력, 교육, 취업상태, 종교 등)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한다(권소영 등, 2017; 오창섭, 최성혁, 2012; 윤자영, 2012). 하지만 보다 최근 연구들은 위와 같은 요인들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생각보다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박선영, 이재림,

2022), 결혼의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인들(예를 들면, 수입 및 자산의 크기,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김석호, 2022; 박선영, 이재림, 2022; 홍수아 등, 2023). 즉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력 관련 수치나 객관적 통계가 아닌, 그들의 가치관 또는 태도/관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현 세대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하여 삶의 당위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선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유계숙 등, 2019; 최미정, 2010). 마찬가지로 홍성희(2020)는 20-30대 미혼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은정(2018)은 미혼 여성을 대상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적인 행동/결정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하여 각각 다루고 있다. 나아가 오신휘(2022)의 경우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보고하면서 개인이 결혼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은 국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 이들이 보이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독특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미혼 청년들이 보고하는 자신의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와 가치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국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는 개인의 성향적, 가치적, 혹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

사회비교경향성

Festinger(1954)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타고난(innate) 추동을 가진다. 사람들은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특성, 능력,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은 할 것인지를 확립한다. 이 같은 사회비교는 그 방향에 따라 상향비교, 유사비교, 하향비교로 나뉘어지는데,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나은 이들과, 유사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이들과, 하향비교는 자신보다 낮은 이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Wills(1981)와 Coyne(1976)는 사회비교가 대개 상향 혹은 하향 두 경우로 나누어지며, 두 경우 모두 주로 개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은 이 같은 사회비교가 실제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비교는 주관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등과는 부적 관계를, 우울 및 불안, 진로미결정,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과는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나래, 이기학, 2016; 김지혜, 2014; 김경미, 2016; 유기은, 2016). 이러한 사회비교는 주로 자신과 배경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열등감/낮은 자존감이나 부적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어릴 적부터 성적, 외모, 소유 등 사사건건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며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경향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즉 대학 진학, 취업, 경력, 주거, 소득/경제력 등에서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취나 주변 사람들의 더 나은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위축되는 것이다(이현주 외, 2019).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으로 인생의 주요한 과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비교경향성은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지수와 동료들(2023)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생각하는 경우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낮을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손해인(2023)은 미혼 남녀들이 보고하는 사회비교경향성은 그들의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통해 사회비교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아가 결혼이 청년들에게 상향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 즉 사회비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나 설명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성향(White & Lehman, 2005) 및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함께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비교경향성과 결혼의향과의 관계에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관련 문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의 소유나 획득을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Dittmar et al., 2014). 이 같은 물질주의는 개인의 성격특질이라기 보다는 삶에서 개인의 여러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Kasser, 2016). 물질주의는 소유중심, 행복추구, 성공판단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Richins & Dawson, 1992), 먼저 소유중심은 물질의 소유와 획득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경향성이다. 행복추구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 이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성공 판단은 개인의 성공 여부를 물질의 소유로 판단, 즉 물질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그동안 다수의 결혼의향 관련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경제적 능력이나 소유의 크기(예를 들면, 월소득, 자산 등)가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의사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오창섭, 최성혁, 2012; 윤자영, 2012). 하지만 최근 박선영과 이재림(2022)은 메타분석을 통해 결혼의향에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고, 조성봉과 손해인(2024)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즉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에 대한 태도/가치관이 소득의 크기 등 객관적 요인들보다 결혼의향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앞서 연구된 문화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물질주의는 미국, 중국, 인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Cho et al., 2016; Flynn et al.,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물질주의가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가치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17개국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연구(Silver et al., 2021)에도 대부분 국가들에서 삶의 의미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족을 꼽는 반면, 우리나라만 물질적 안녕/행복(Material Wellbeing)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 세대의 주요 특징이자 사회현상인 비혼 및 만혼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물질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 사회 위계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고자(status seeking)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혹은 물질주의가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갖는 것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면(Richins & Rudmin, 1994)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상향비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 필요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제시된 사회비교 또한 이 같은 물질주의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비교는 물질주의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김경미, 2019; 이용건, 하창언, 2023; Kim et al., 2017) 사회비교가 물질주의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나은경, 홍주현, 2018).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비교와 물질주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자면, 사회비교의 경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나 상태를 평가하려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는데(Festinger, 1954), 이 같은 경향성은 인간 본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양한 인간행동, 예를 들면 목표설정이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Festinger(1954)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를 하는 경향이 높는데, 이는 상향비교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회비교는 주로 자신과 배경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열등감/낮은 자존감이나 부적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물질주의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타고난 경향성이나 성격 특질이라기보다는 성격이나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태도, 가치관으로 분류된다. 즉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나 가족/성장에

서의 경험 등을 통해 물질에 더 많은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나 인정과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의 소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각각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사회비교와 물질주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본성적/자동적인 타인과의 비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가져오며, 특히 상향비교를 통해 타인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이나 타인과의 간극을 만회하려는 시도으로써, 혹은 외재적 수단(예를 들면 돈, 소유)을 통한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물질의 소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McCardle & Speck, 2019).

문헌에 따르면 여러 경험적 연구들도 이 같은 이론적 관점과 그에 기반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뒷받침하는데, 사회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물질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며(Kim et al., 2017), 대학생 대상 실험연구(Zheng et al., 2018)에서는 사회비교가 증가할수록 물질주의의 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도 사회비교가 소셜 미디어 사용의 증가를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Ruan et al., 2023). 이와 같이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비교가 물질주의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나아가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가족이나 학교에서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강요당하면서 자라고, 물질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소유와 성취

로 개인을 평가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에서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기존 문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앞서 제시된 사회비교경향성과 결혼의향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주의와 결혼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을 함께 고려하면 사회비교경향성은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탐색은 아직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미혼청년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

불안이란 자율 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 우려, 초조 및 걱정 등의 주관적 상태로, 특정한 순간에 일정한 수준의 강도로 경험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Spielberger et al., 1983). 선행연구에 따르면 평소 불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교적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지나친 걱정 또는 위협, 위험에 대하여 반추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arrett & Armony, 2006). Carver와 동료들(1989)은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목표로부터 이탈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띄게 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심리학, 의학 분야에서 주로 개인적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이자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이 속한 사회적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개인의 불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개인 내적, 의학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하

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예를 들면, Barca, 2018; Christina & Schmidt, 2008). 특히 국내의 경우 지난 수년간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불안의 영향에 대한 이해의 필요와 탐색이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불안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탐색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이현주와 동료들(2019)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이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분량의 연구와 탐색을 통해 그 근거와 영향력을 제시한 바 있고, EBS의 경우 현 사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들을 공유하며 살아감을 제안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6개의 지배적 감정들 중에서 불안을 그 첫 번째로 꼽은 바 있다(EBS 감정시대 제작팀, 2017). 그에 앞서 송관재와 동료들(2004)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평가 불안과 존재 불안으로 구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특이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동기와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평가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동안 급속하게 증가한 사회적 연결성(예를 들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안의 영향력은 당시에 비해 더 증가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국내의 여러 연구들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불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 직간접적 그 영향을 마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와 그에 대한 탐색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하지만 각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김석호(2022)는 청년들의 비혼과 출산 기피가 객관적 자원보다 그들의 주관적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면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려는 청년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EBS 감정시대 제작팀(2017)의 경우에도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을 다른 주제들보다 ‘결혼 및 출산’이라는 주제와 첫 번째로 연결하여 제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김근태(2024)는 질적 연구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두렵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여러 통계 및 자료들 또한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주거,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불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현 세대의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이 미래와 관련된 사회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불안의 직간접적 영향 아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각자가 인식하는 상태적 불안의 수준이 그들의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들을 통한 보다 현실적인 탐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아직 불안과 결혼의향의 관계에 대해 양적 연구를 통한 실질적 탐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그들의 결혼의향과 실제로 상관이 있는지를 회귀 및 조절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이 높은 경우 과거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희은 외,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김근태(2024)는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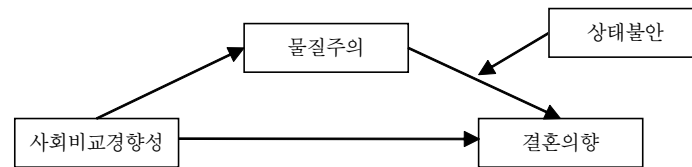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의 특성이 불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제시하면서, 불안의 감소가 결혼과 출산의 결심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물질주의와 불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Burroughs & Rindfleisch, 2002; Kasser & Ryan, 1993) 물질적 가치의 중시와 특정행동, 특히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개인이 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불안 및 그에 대한 인식/영향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바와 함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된 사회비교, 물질주의, 불안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불안이 결혼의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비교 및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이 인식하는 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조심스레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태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그림 1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전국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등할당하여 남성과 여성, 20대와 30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500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0.30세($SD=4.80$)이다. 종교의 유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94명(69.4%)이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06명(30.6%)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95명(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27명(12.7%), 대학교 재학이 87명(8.7%), 대학원 졸업이 55명(5.5%), 대학원 재학이 32명(3.2%), 중학교 졸업 이하는 4명(0.4%)이었다.

측정 도구

결혼의향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가 아닌 상황 또는 조건 등에 따른 개인의 판단으로의 결혼의향을 고려하기 위해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박혜민, 전귀연(2018)의 결혼의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결혼의향, 당위적 결혼의향, 기능적 결혼의향을 포함하는데, 정서적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안정감, 행복, 사랑 등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갖는 결혼의향을 의미하고, 당위적 결혼의향은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인식하며 갖는 결혼의향, 그리고 기능적 결혼의향은 기능적인 역할을 위해 갖는 결혼의향을 의미한다. 결혼의향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평균(M)	빈도(명)	표준편차(SD)	백분율(%)
연령		30.3		4.80	
성별	남		500		50
	여		500		50
지역	수도권(서울/경기)		500		50
	비수도권		500		50
종교유무	있음		694		69.4
	없음		306		30.6
최종학력	대학원 졸업		55		5.5
	대학원 재학		32		3.2
	대학교 졸업		695		69.5
	대학교 재학		87		8.7
	고등학교 졸업		127		12.7
	중학교 졸업이하		4		0.4
	중학교 졸업이하		4		0.4
월평균 개인소득	근로소득 없음		198		19.8
	100만원 미만		74		7.4
	100-200만원 미만		84		8.4
	200-300만원 미만		375		37.5
	300-400만원 미만		174		17.4
	400-500만원 미만		54		5.4
	500-600만원 미만		17		1.7
	600만원 이상		24		2.4
전체			1,000		100

는 정서적 결혼의향 .95, 당위적 결혼의향 .93, 기능적 결혼의향 .91였다.

사회비교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하고, 최윤희(2003)가 번안한 사회비교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력 관련 문항들(6개)과 의견 관련 문항들(5개)을 포함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능력 .77, 의견 .68였다.

물질주의

Richins과 Dawson(1992)가 개발하고 설경옥(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단축형)를 사용하여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본래 총

18문항으로 개발되었지만 유지혜, 설경옥(2018)는 단축형(15문항)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으로서는 성공판단, 행복추구, 소유중심이 있는데 성공판단은 물질을 소유한 것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행복추구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소유중심은 삶에서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해당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는 1점, ‘약간 아니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성공판단 .79, 소유중심 .64, 행복추구 .59로 나타났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pielberger (1983)가 개발하고 한덕웅 등(1993)이 표준화한 상태-특성불안 척도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이다. “STAI-Y”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문항을 합하여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서의 불안(특성불안; 예를 들면,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나는 하찮은 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등)이 아닌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불안 20문항(예를 들면,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나는 걱정하고 있다 등)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는 1점, ‘조금 그렇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이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SPSS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

본 연구의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Mplus 8.7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1) 측정모형 분석, 2) 조절모형 분석 3) 조절된 매개효과모형 분석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측정 변인은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회비교경향성, 물질주의, 결혼의향은 각 하위요인을 문항묶음으로 하였으며, 하위요인이 없는 불안은 요인계수방식(Factorial Algorithm)으로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둘째, 모수는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위배에도 유연하게 작용하는 MLR(Maximum Likelihood Robust errors) 방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들(성별, 종교, 학력, 소득)을 통제하여 탐색하였다.

셋째, 측정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통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의 경우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적절한 적합도, .10 이하는 보통 적합도,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2). CFI와 TLI의 경우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SRMR은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넷째,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모수는 수치적분을 통한 유사 최대우도(quasi ML)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조절효과모형의 경우 유사최대우도 추정방법이 RMSEA, CFI, TLI, SRMR 등의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의 평균은 결혼의향 2.79($SD=.935$), 사회 비교경향성 3.09($SD=.575$), 물질주의 3.10($SD=.354$)로 나타났고, 불안은 2.36($SD=.336$)이었다. 변인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절댓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성과 물질주의는 결혼의향과 각각 정적인 상관($r=.175, p<.01$; $r=.109, p<.01$)을 갖는 것으로, 불안은 결혼의향과 부적인 상관($r=-.129,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은 물질주의와 불안과 각각 정적인 상관($r=.397, p<.01$; $r=.159, p<.01$)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질주의와 불안도 정적인 상관($r=.246,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각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인 사회비교경향성, 물질주의, 결혼의향과 불안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3 참조).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RMSEA=.095$, $CFI=.951$, $TLI=.929$, $SRMR=.053$ 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모든 변인의 요인부하량이 수용기준인 .40 이상(Ford et al., 1986)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Cheung & Lau(2015)의 절차를 따랐다. 먼저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RMSEA=.075$, $CFI=.931$, $TLI=.915$, $SRMR=.061$ 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또한 기저모형과 상호모형 사이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구분	결혼의향	사회비교경향성	물질주의	불안
사회비교경향성	.175**			
물질주의	.109**	.397**		
불안	-.129**	.159**	.246**	
평균	2.790	3.094	3.106	2.362
표준편차	.935	.575	.354	.336
왜도	-.246	-.289	-.124	.357
첨도	-.651	.548	.831	.162

주. ** $p<.01$

표 3.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RMSEA	RMSEA (90% CI)	CFI	TLI	SRMR
모형계수	378.245 ($df=38, p<.05$)	.095	.086-.103	.951	.929	.053

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Sardeshmukh와 Vandenberg(2017)이 제안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AIC값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저모형과 상호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기저모형과 상호모형간 AIC 차이가 4 이상 7 이하면 작은 AIC값이 더 적합하며, 10 이상일 경우에 AIC가 큰 모형은 배제해도 좋을 만큼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상호모형과 기저모형의 AIC값이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모형이 명백히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비교경향성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와 불안의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한 결과(표 6 참조)는 다음과 같다. 사회비

교경향성은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321, p<.001$) 사회비교경향성은 물질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625, p<.001$), 물질주의는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06, p<.05$) 물질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질주의와 조절변인인 불안의 상호작용항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하여 결혼의향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불안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의향도 높아지는데, 이 같은 관계가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제시한다.

표 4. 측정 변인의 요인부하량

	표준화계수(β)	비표준화계수(B)	SE	C.R.
사회비교경향성→ 능력	.937	1.000	.05	18.702***
사회비교경향성→ 의견	.501	0.491	.036	14.028***
물질주의→성공판단	.839	1.000	.020	41.381***
물질주의→소유중심	.587	0.535	.025	23.363***
물질주의→행복추구	.754	1.202	.021	35.362***
결혼의향→정서적	.886	1.000	.008	109.156***
결혼의향→당위적	.935	1.107	.006	153.831***
결혼의향→기능적	.935	0.995	.006	152.2***
불안→불안1	.839	1.000	.011	78.63***
불안→불안2	.851	1.085	.010	83.823***
불안→불안3	.993	0.761	.006	160.984***

주. *** $p<.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와 기저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RMSEA	RMSEA (90% CI)	CFI	TLI	SRMR	AIC
모형계수	584.201 ($df=89, p<.05$)	.075	.069-.080	.931	.915	.061	18222.51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의 경로계수 추정치 및 검증통계량

종속변수 : 결혼의향				
	비표준화계수(B)		C.R	AIC
	B	SE		
사회비교경향성	.321	.070	4.562***	18211.557
물질주의	.106	.052	2.032*	
불안	-.276	.052	-5.364***	
물질주의 X 불안	-.248	.085	-2.909***	
종속변수 : 물질주의				
	비표준화계수(B)		C.R	
	B	SE		
사회비교경향성	.625	.082	7.609***	

주. *** $p < .001$, ** $p < .005$, * $p < .05$

조건부 효과 및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다음으로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불안 수준을 세 가지($M-1SD$, M , $M+1SD$)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라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평균(M)과 평균보다 낮은 수준($M-1SD$)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했으며, 불안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수준($M+1SD$)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의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그림 2 참조), 불안 수준이 낮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불안 수준이 높을

때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 수준에 따른 물질주의의 간접효과 크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분석 결과, 간접효과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M-1SD$)에서 불안 수준에 따른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불안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평균보다 높은 수준($M+1SD$)보다 평균수준(M)에서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정적

표 7. 불안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검증

	Conditional effect	SE	C.R	95% Boot CI	
				Lower	Upper
-1SD	0.45	.07	6.458***	.314	.588
M	0.23	.04	5.155***	.142	.316
+1SD	0.01	.08	0.095	-.143	.157

주. Bootstrap Sample=5,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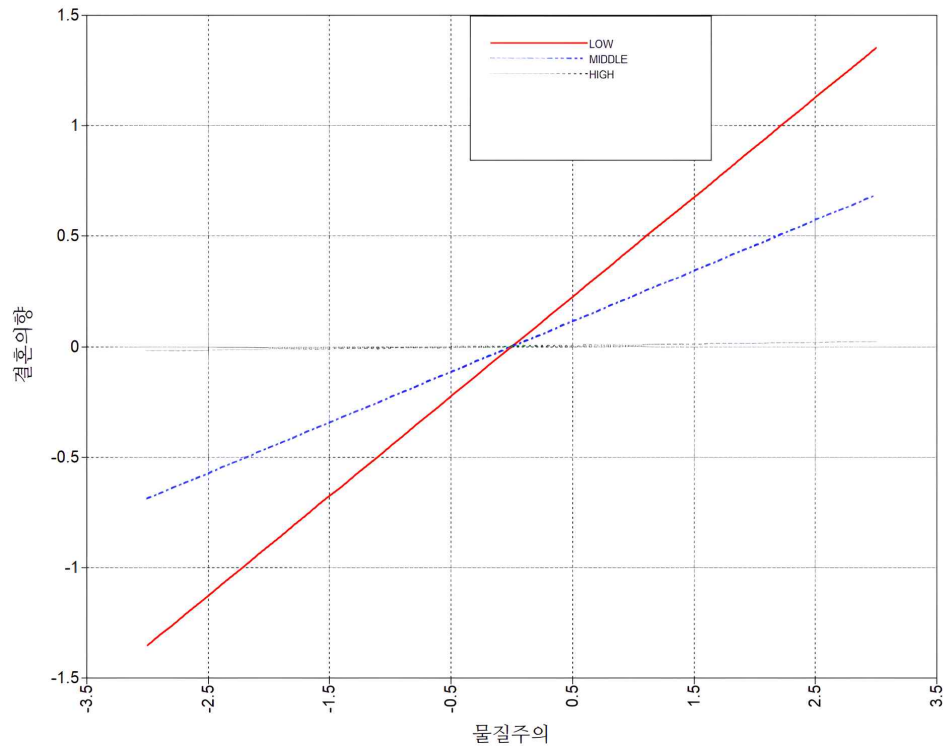


그림 2. 조건부 효과 기울기 검증

표 8. 불안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	Boot SE	95% Boot CI	
			Lower	Upper
-1SD	.106	.032***	.046	.172
M	.060	.025	-.002	.120
+1SD	.150	.030	-.045	.076

주. Bootstrap Sample=5,000

*** $p < .001$

인 영향의 크기가 증가하는 반면, 불안 수준이 평균적이거나 높은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불안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Johnson & Neyman(1936)기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그림 3 참조), 불안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경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평균일 경우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경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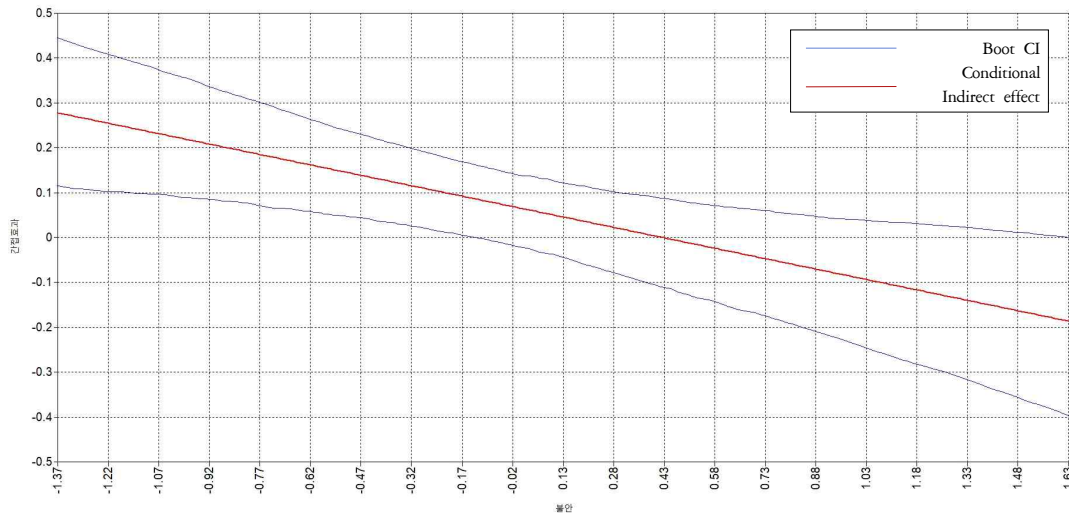


그림 3.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Johnson-Neyman)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그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20-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와 물질주의, 그리고 결혼의향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비교와 물질주의, 결혼의향의 관계에서 불안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와 물질주의는 결혼의향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은 사회비교와 물질주의와는 정적 관계를, 결혼의향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은 물질주의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고, 사회비교가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의향에 대한 사회비교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비교가 높을수록 결혼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20, 30대 미혼 청년들이 평소 타인과의 비교에 기반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을 더

하고 싶어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정적 관계는 최근 손해인(2023)이 제시한 바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같은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혹은 결혼이라는 행위를) 더 나은 상태나 행동, 전망이나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음(상향비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미혼 남녀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아가 결혼, 혹은 결혼해서 사는 삶을 보다 이상적으로 여기거나 부러워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재확인하고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경로/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상에서의 대화는 물론 소셜 미디어, 나아가 최근의 질적 연구들의 경우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이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결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결혼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양적 연구를 통해 볼 때에도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이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나아가 선행연

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이 불안이나 우울과 정적 인 관계를,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과는 부적 관계를 갖고, 동시에 결혼의향이 높은 삶의 만족도나 낮은 불안과 연관을 가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이 정적 관계를 갖는 결과는 분명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두 변수 간의 정적 관계는 일상에서의 유사한 예시들을 통해 비춰보면 의외로 보다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할지 그 반대일지, 혹은 더 멋진 외모를 갖고 싶어 할지 그 반대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결혼이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더 좋은 것, 즉 상향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은 두 변인의 관계가 직관적이지 않거나 이해가 어렵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왜 일상의 대화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혹은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인식하는지(혹은 사회비교가 결혼의향과 부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들이 추측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말하는바, 즉 좋아 보이고 갖기 원하지만(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한다(“난 결혼 생각 없어”)고 이어지는 귀결의 행간에는 사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위치(혹은 능력)를 판단해 볼 때 그 바람직한 대상을 내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즉 그 대상과 자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 ‘결혼 포기’로 이어진다는 결론의 사이에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비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은 (아직 혹은 앞으로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스

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대괄호 속의 부분들이 일상의 대화나 사고의 과정에서는 직접 드러나거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비교 → [타인에 비한 자신의 상대적 부족함 인식] → 결혼 포기, 혹은
 사회비교 → [결혼의 조건/기준, 혹은 결혼해 잘 사람들의 삶의 수준 높음 인식] → 결혼 포기

정리하자면, 손해인(2023)과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정적 관계는 각 변인들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사실 그 해석과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상의 대화나 미디어, 질적 연구 등에서 말하는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부적’ 관계는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높은 조건과 기준, 그리고 결혼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힘든 대다수 청년들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 전반적 평가 혹은 그에 대한 인식이 생략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같은 연구자들의 해석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한 세심한 검증이 요구된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통계청(2023)이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에서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고 보고한 사실, 그리고 결혼을 위한 주택의 평균 비용이 2억 4300여 만원, 기타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결혼식 비용만 5400여 만원이 든다고 보고한 수치, 나아가 이러한 수치들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 새롭거나 놀랍게 다가오지 않음을 고려하면,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부적 관계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 현 세대의 청년들이 갖는 결혼에 대한 높은 기준(혹은 부담) 및 그에 기반한 자신들의 위치/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정 및 그 역할이 단지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만 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손해인과 동료들(2024)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그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조절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위와 같은 결혼비용을 부모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가 실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박지수와 동료들, 2023도 참조).

참고로 위의 분석과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가 그들이 보고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실제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혹은 자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능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 사이에서 실제로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자들은 추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가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율성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가설로 제시한 “사회비교 → 결혼 포기(의향 없음)”의 관계 및 두 변인 간에 생략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분석에 따르면 미혼 청년들의 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비교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율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결혼의향이 사회비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결혼의향은 사회비교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혹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한편,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사회비교-결혼의향’의 관계는 ‘사회비교-결혼이행’의 경우와는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더 원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그러한 경향성이 실제 결혼이라는 행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시할 수 없음을 고려해

야 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을 더 하고 싶어한다고 해서 그러한 경향이나 기대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경향이나 기대가 반드시 결혼이라는 행위로 이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비교는 결혼의 이행을 미루거나(혹은 만혼에 영향을 미치거나) 궁극적으로 결혼회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바, 사회비교가 결혼의향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입체적/복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따르면 사회비교는 필히 경쟁(경쟁적 태도와 행동)을 초래하는데(Garcia et al., 2013), 경쟁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특히 청년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우 주요한 특성이다(김홍중, 2019; 이재열, 2015 등). 이를 고려할 때 경쟁은 추후 연구에서 사회비교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한 기제, 혹은 변인의 하나로 탐색 될 수 있을 것이다(김수아, 조성봉, 2024). 특히 초경쟁사회, 극단적 경쟁사회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입시, 취업 등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청년들이 결혼 또한 개인 혹은 두 사람만의 필요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비교에 기반하여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성취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즉 현재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결혼을 성취하던지 아니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과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영태 외, 2019).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상태불안은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청년들의 물질주의적 태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그들이 현재 인식하는 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안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질주의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만 불안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유의하지만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에 대한 물질주의의 정적 영향이 약해지고, 불안이 평균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것, 즉 불안의 부적 영향에만 결혼의향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물질주의와 불안의 수준에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동시에 미혼 남녀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정서/심리 상태(불안수준)가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결혼의향에 의미있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점, 즉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결혼의향의 이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징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조성봉과 손해인(2024)은 국내 미혼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질주의가 다른 객관적인 경제적 변인들, 특히 소득,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 보다 결혼의향을 더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태도/가치관의 영향력이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여 보이고 있다. 즉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평소 그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뿐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 특히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를 통해 행복과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성(Richins & Dawson, 1992)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결혼도 더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인식하는 현실에서의 높은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섣뚱 결혼을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 자체가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여겨지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 세대에서 청년들의 결혼 가능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주거지 마련 여부, 결혼 비용, 안정적 고용/취업 여부, 모아둔 자산의 정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부분들에서 물질적 요인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 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 및 불안정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물질 관련 요인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 불안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 혹은 사회적 불안정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결혼을 원치 않거나 원치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물질 관련 요인들(안정된 수입, 자산, 주택 등)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 대다수에게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및 자원들이라 여겨질 뿐 아니라 동시에 현 세대에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혹은 그들의 불안 초래하는 주요한 대상이기도 함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해석/의의는 현재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즉 결혼을 원하지만 원할 수 없는 입장)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비교가 물질주의를 매개로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혼 청년들이 가진 타인과의 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그들이 인식하는 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미혼 청년들은 더 높은 물질주의적 태도를 갖는데, 불안이 낮을수록 이 사회비교경향성이 물질주의를 거쳐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분명한 반면, 불안이 높을수록 이 같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불안이 높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특질적 반응이나 지속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현재 경험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느끼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이 높은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 청년들은 대학(원) 진학, 진로 및 취업 준비, 안정된 직장 유지, 주거 마련, 결혼 및 출산 등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평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개인의 반응 및 인식이 낮은 경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물질의 소유와 획득의 추구를 통해 결혼의향에도 더 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불안이 높은 경우, 즉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결혼을 '원하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 전세 이상의 주거지 마련 등 결혼을 위한 '사회적' 기준/조건이 존재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미혼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기준들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비교/평가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물질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도 원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을 높게 인식하거나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교/평가의 영향이 결혼의향까지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미혼 청년들이 보고하는 상태불안은 그들의 결혼의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불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평소 사회적 불안정성에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수준의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과 관련하여 불안에 대해 다루어 왔지만(김근태, 2024 등; 김석호, 2022) 불안과 결혼의향의 직접적인 관계를 양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살펴본 적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불안은 병리적인 개인의 특질, 혹은 지속되는 불안에 민감한 정도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상태불안)을 반영하고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불안이 개인의 미래의 행동(예를 들면, 진로준비; 오은주, 201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해 왔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결국 미혼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이 현재의 사회적 상태(높은 불안정성)와 그에 대한 인식(불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결과는 개인이 경험하는 상태적 불안이 사회적 환경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음, 즉 미혼 청년들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체계적 맥락(사회보장, 사회안전망 등)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현주 외, 2019)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경험/인식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실은 추후 연구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인 사회비교의 영향을 직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결혼의향 관련 연구들이 주로 미혼 청년들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혹은 개인 차원의 가족/부모 관련 경험이나 가치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맥락을 고려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현 세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결혼을 거부하기보다는 더 하고자 하는 의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와 논의는 추후 결혼의향 관련 연구들의 방향과 내용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추후 이 같은 사회비교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결혼에 대한 태도, 출산의향, 양육경험 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다른 주요한 변인들과 결혼의향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사회비교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특징인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Baldwin & Mussweiler, 2018; Chung & Mallery, 1999),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외형과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과의 비교 및 동조현상이 나타난다(박재완과 동료들, 2017; 조궁호, 김은진, 2001). 이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 전반의 흐름 및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주요 이슈인 결혼 또한 이 같은 집단적 문화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인혁과 동료들(2024)은 미혼 청년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도 높음을 제시하였고, 이수민과 조성봉(2024)의 잠재유형 분석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을 고려하면 추후 미혼 청년들의 집단주의적 경향성과 사회비교가 그들의 결혼에 대한 의향/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원함에도 왜 결혼의 포기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의 탐색과 이해, 그리고 그에 기반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나 활발하게 작동하는 소셜 미디어는 청년들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자신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면서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과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과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혼 및 육아의 모습은 작금의 청년들에게 결혼을 더욱 이상화하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과 자력의 부족을 느끼게 만들며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실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 간의 간극을 넓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탐색을 통해 확인, 검증하고 그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거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결혼의향과 관련해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 중 결혼의향에 대한 불안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의 역할을 직접 탐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개인의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맥락(진학, 진로, 취업, 생계, 주거 등과 관련되어 지속되는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경험) 속에서 느끼는 불안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추후 결혼의향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의 역할/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현 세대의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의 불안의 특성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과 결혼의향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설문이나 통계에서 현 세대의 미혼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말하고, 사회나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경제적 유인책/대안을 제공, 정책을 집행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불안, 사회비교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관점 또한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맥락(예를 들면,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반응을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가 중요하고 물질적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불안에도 더 취약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상관분석 참조)는 추후 결혼의향 및 결혼이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해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생겨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이현주 외, 2019), 이 같은 과정은 분명 우리 사회의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및 출산의향) 문제와 연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에 추후 이 같은 과정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도 고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추후 문화비교 연구를 통해 외국/타문화권의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 그 추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의 내용들이 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비슷한 사회현상(미혼 및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과정이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예를 들면, 사회비교나 불안이 결혼의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예를 들어 개인주의 수준이 높거나 집단주의가 낮은 사회에서 사회비교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지, 다른 예측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등)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미혼, 저출산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아가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현 세대의 미혼이나 만혼 현상이 우리나라, 혹은 집단주의 사회만의 특징은 아님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화비교 연구는 현

시점에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혼/만혼 문제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에서 1,000명에 이르는 전국의 20-39세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은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결혼의향 연구들이 각각의 연구 목적/맥락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이대와 성별, 혹은 특정 대상(예를 들면, 직장인)에 국한되어 진행되거나, 반대로 다소 포괄적으로, 즉 혼인여부를 고려하지 않거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미혼 청년들에게 일반화하거나 적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비율, 성별 및 나이의 비율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그들의 결혼의향 등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 후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미혼 청년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전국 미혼 남녀들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이 20, 30대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바 결혼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는 특정 나이대에 대한 응집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연령대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보다 전략적으로 구분하거나 선택하여 탐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예를 들면, 평균 초혼 연령을 기준으로 수집; 혹은 대학생을 제외한 20, 30대 대상으로 수집).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비교경향성, 물질주의, 불안과 결혼의향의 관계는 각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해당 변인들이 결혼의향에 선행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본 연구는 횡단적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결과와 논의에서 제시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안과 결혼의향의 관계의 경우 불안의 부적 영향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서 하는 결혼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통한 친밀하고 지속되는 관계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한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비교와 결혼의향의 관계가 유의함을 제시하였지만 어떠한 경로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며, 추후 사회비교와 결혼을 원함 혹은 포기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들은 결혼의향을 탐색함에 있어 사회심리적 요인들(예를 들면 비교와 경쟁 등)과 사회문화적 맥락(예를 들면, 집단/개인주의 문화, 미디어/SNS의 영향력 등)의 역할과 의의를 함께 고려하여 그 상호작용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자들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이 결혼의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개인이 경험하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청년들이 보고한 불안의 수준이 그들이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불안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의 일반적 불안과 얼마나 구분되는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아직까지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없음에서 기인하는데, 본 연구에도 '사회불안 척도'의 경우 임상적, 병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강함을 고려하여 딱히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연구들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특성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측정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예를 들면, 이상영 외, 2015), 추후 보다 적절한 척도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불안의 영향력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저자소개

장류미는 한동대학교 휴먼테크융합과 석사 과정생이며 미혼 청년 남녀의 결혼 및 저출산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조성봉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결혼 및 부부/가족 관계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결혼과 연관된 사회심리적 이슈들을 탐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선강, 어성연 (2013). 30 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권소영, 이재림,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김경미 (2019).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865-874.
- 김근태 (2024). 청년의 불안감과 출산의도의 관계: 초점집단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7(2), 1-32.
- 김나래,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

- 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김석호 (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조사연구*, 23(2), 1-33.
- 김수아, 조성봉 (2024.05.25). 20, 30대 미혼 남녀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경쟁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포스터 발표]. 한국가족관계학회. 서울특별시.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4): 1291-1306.
- 김지혜 (2014). 중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필숙, 이윤석 (2024).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조사연구*, 25(2), 97-125.
- 나은경, 홍주현 (2018). 성형·미용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과 소셜 미디어 이용의 사회심리: 여고생의 신체 이미지와 겉벌, 사회비교 및 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6(1), 71-96.
- 박선영, 이재림 (2022).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07-137.
- 박재완, 이병훈, 한준, 이진영 (2017.08.08). 흠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 [대외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
- <https://eiec.kdi.re.kr/publish/archView.do?seq=6>
- 박지수, 박인숙, 이재림 (2023.06.03). 청년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 유형화.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기타.
- 박혜민, 전귀연 (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박희은, 김기호, 이장한 (2017). 한국형 스웨덴 짐바르도 시간관 설문지 타당화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1), 489-502.
- 손해인 (2023). 미혼남녀의 개인주의 성향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 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양다연, 유계숙 (2020). 대학생의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결혼 및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0(1), 77-100.
- 오세비, 박성철 (2018). 후기여자청소년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6(2), 279-300.
- 오신휘 (2022).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분석과 이해: 가족가치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5(3), 51-86.
- 오은주 (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85-107.
- 오창섭, 최성혁 (201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복지행정논총*, 22(1), 91-125.
-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유계숙, 양다연, 정백 (2019).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수저담론 기반 귀속의식의 실증 분석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329-340.
- 유기은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career anxiety: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goal discrepancy and*

- self-encouragement*.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민, 조성봉 (2022.11.04). 결혼-자녀가치관에 따른 미혼 성인 남녀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물질주의가 미치는 영향 검증 [포스터 발표]. 가족치료학회. 서울특별시.
- 이용건, 하창현 (2023).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문화적 자기로 조절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1), 63-82.
- 이인혁, 이주대, 조성봉 (2024.05.25). 미혼 청년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포스터발표]. 한국가족관계학회. 서울특별시.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현주, 광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재연, 유찬기, 조선웅, 박경숙 (2022). 결혼, 흔들리는 사다리: 젠더와 계층이 고소득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시아 4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45(4), 1-24.
- 조궁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성봉, 손해인 (2024).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39-53.
- 조영태, 장대익, 장구, 서은국, 허지원, 송길영, 주경철 (2019).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출산율제로 시대를 바라보는 7가지 새로운 시선. 김영사.
- 최미정 (2010).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 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섭, 이지연 (2019).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4), 1039-106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3.12.15.) 한국의 사회동향 2023.
- 통계청 (2024.03.19). 2023년 혼인·이혼통계.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의 상태-극성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홍성희 (2020).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4(1), 1-19.
- 홍수아, 손서희, 최자혜 (2023). 20대와 30대 비혼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능성 관련 요인. *Human Ecology Research*, 61(2), 183-194.
- Baldwin, M., & Mussweiler, T. (2018). The culture of social comparis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39), E9067-E9074.
- Barca, M. (2018). Understanding the 'social' in social anxiety. <https://pursuit.unimelb.edu.au/articles/understanding-the-social-in-social-anxiety>에서 2019. 3. 25. 인출
- Barrett J., & Armony J. L. (2006). The influence of trait anxiety on autonomic response and cognitive performance during an anticipatory anxiety task. *Depress Anxiety*, 23, 210-219.
-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 - 370. <https://doi.org/10.1086/344429>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hatterjee, D., Kumar, M., & Dayma, K. K. (2019). Income security, social comparisons and materialism: Determinants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Indi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7(4), 1041-1061.
- Cheung, G. W., & Lau, R. S. (2017).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in moderated mediation models: A comparison of regression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746-769.
- Cho, H. J., Jin, B., & Watchravesringkan, K. T. (201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emerging and newly developed Asian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4(1), 1-10.
- Chung, T., & Mallery, P. (1999).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8, 340-352.
- Christina, A. B., & Schmidt, L. A. (2008). Social anxiety disorder: A review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4(1), 123 - 143.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2), 186-193. <https://doi.org/10.1037/0021-843X.85.2.186>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
- EBS 감성시대 제작팀. (2017). 감성시대. 월북.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 Garcia, S. M., Tor, A., & Schiff, T. M. (2013). The psychology of competition: A social comparison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6), 634-65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
- Goldsmith, R., & Flynn, L. R.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5, 49-69.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es and their application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emories*, 1, 57-93.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 - 422.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2414-033344>
- Kim, H., Callan, M. J., Gheorghiu, A. I., & Matthews, W. J. (2017). Social comparison,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material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2), 373-392.
- Kline, T. J. B.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Inc. <https://doi.org/10.4135/9781483385693>
- McCardle, J. G., & Speck, S. S. (2019).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comparison, 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 US, China, Croatia, and India. *Journal of Business Diversity*, 19(5), 68-87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https://doi.org/10.1086/209304>.
- Richins, M. L., & Rudmin, F. W. (1994). Materialism and economic psycholog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5(2), 217 - 231. [https://doi.org/10.1016/0167-4870\(94\)90001-9](https://doi.org/10.1016/0167-4870(94)90001-9)
- Ruan, C., Lu, Z., Li, H., Lin, W., Li, D., & Yuan, J. (2023). More friends on SNS, more materialism? The moder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PLoS ONE*, 18(5), Article e028372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83723>
- Sardeshmukh, S. R., & Vandenberg, R. J. (2017). Integrating moderation and media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721-745.
- Silver, L., van Kessel, P., Huang, C., Clancy, L., & Gubbala, S. (2021, November 18).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1/18/what-makes-life-meaningful-views-from-17-advanced-economies/>
- Son, H., Lee, S., Cho, S. (2024, November 21). *Attitude Toward Marriage, Perceived Parent's Financial Status, and Marriage Intention in South Korea* [Poster presentation].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Bellevue, Seattle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I*.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657401-2.50008-3>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V)*.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 Vagg, P.R. and Jacobs, G.A.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
- Zheng, X., Baskin, E., & Peng, S. (2018). Feeling inferior, showing off: The effect of nonmaterial social comparisons on conspicuous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0(C), 196-205.

1 차원고접수 : 2024. 08. 02.

수정원고접수 : 2024. 11. 26.

최종게재결정 : 2025. 02. 04.

Exploring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and Materialism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The Moderating Role of Anxiety

Jang Ryumi¹⁾

Cho Sungbong²⁾

¹⁾Department of Human-Tech Convergence, Handong University

²⁾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Social Welfare, 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and materialism on th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s well as how these relationships vary depending on levels of anxie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0 unmarried individuals aged 20 - 39 across the country to collect data. Basic statistical analyses, moder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ere tested for significance. The findings revealed three key results: First, social comparison and materialism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intentions, while anxiety was negatively associated. Second, anxiety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marriage intentions.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n marriage intentions through materialism varied depending on levels of anxiety. Specifically, individuals with higher tendencies for social comparison exhibited stronger materialistic attitudes and higher marriage intentions, but anxiety reduced these effects.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and attitudes/values in shaping marriage intentions, providing valuable insights into how the psychological state (anxiety) of unmarried young adults influences the impact of their attitudes and values on marriage inten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marriage intentions by offering a quantitative examination of these factors.

Key words : marriage intention, social comparison, materialism, anxiety